

## 한국어 학습자의 논쟁 담화 전략 연구\* \*\*

-중국어권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다기능 논쟁 담화 전략을 중심으로-

조 위 수

### Abstract

**Cho Wisu.** 2015. 12. 31. **A Study on the Argument Discourse Strategies of Korean Learners - focusing on the multifunctional argument discourse strategies of Chinese Korean learners' and those of Korean native speakers'.** *Bilingual Research* 61, 241-270. In this study, I tried to examine the features of the argument strategies of advanced Chinese Korean learners' by comparing with those of Korean native speakers'. When it comes to speaking styles, I discovered that Chinese Korean learners, like Korean native speakers, used both of high-involvement style and high-considerateness style. However, they preferred to use high-involvement style rather than high-considerateness style. And their speech rate was rather fast. About face-saving, they, even though most of them were female, actively employed various face-saving strategies against face threatening acts. The multifunctional argument strategies of both groups were revealed from questioning and repetition. In argument, questioning and repetition were utilized as macro-strategies which introduces super ordinate topics and sub ordinate topics and develops topic flows as well as various micro-strategies which conveys information and maintains relationship and conversation. Meanwhile, I also discovered that many of them found it difficult to select suitable convers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different situations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8012913).

\*\* 이 글은 한국화법학회 제32회 전국학술발표대회(2015.9.19)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although each of them had a good command of Korean. I expect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enhance Korean learners' strategy using skills and to develop education materials in the future by extracting argument strategies through the conversation analysis aimed at Korean native speakers and Korean learners.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argumentative discourse(논쟁 담화), strategic competence(전략적 능력), multifunctional argument strategy(다기능적 논쟁 전략), macro strategy(거시 전략), micro strategy(미시 전략), repetition(반복), question(질문)

## 1. 서론

Ruth(1946)에서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특성을 지나치게 막연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인식하는 것을 20세기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표현한다. 국가 간의 관계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제2언어를 습득하려는 학습자 수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학습자들의 목표 언어 사회에 대한 이해 수준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2언어 학습에서 이로 인하여 생성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목표 언어 사회의 문화와 그 속에서 통용되는 담화적 특성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담화 전략은 화자 개인, 혹은 대화자 쌍방이 담화상에서 언어를 특정 목적 성취를 위하여 활용하는 기법으로, 모든 언어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질과 더불어 각 문화권별로 통용되는 고유의 것이 존재한다. 언어는 문화적 산물로서 화자는 본인이 성장한 언어 사회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문화적 배경이 다른 화자들이 동일한 언어를 발화하더라도 대화의 단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일방향적인 한국어 교수를 넘어서서 쌍방 교류의 입장에서 서로의 언어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그것은 교수자가 목표로 하고 학습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대상 언어 습득에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담화 장르 중 논쟁 담화에 중점을 두고 그 속에 나타난 논쟁 담화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논쟁(argument)은 인간이 삶을 영위해 가는 가운데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류 보편적인 특성으로, 개인이 지니는 사고와 견해차는 언제든 그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준다(조위수·조완철, 2013). 논쟁의 양상은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에 따라, 대화 상대가 가진 힘, 즉 나이와 신분에 따라, 그리고 친소 관계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인의 논쟁 전략이 학습자 모어와 어떻게 다른지 인식시키는 것은 학습자들이 한국어 구어 담화 상황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 중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중국어권 학습자이다. 2014년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수는 전체 유학생 중 59.3%(50,336명)에 달한다. 이 학습자의 한국어 담화를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담화와 비교하여 전략적 특성을 살피는 것은 담화 차원의 한국어 교육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담화 분석과 논쟁 담화

제2언어 학습자들은 다양한 목적에서 목표어를 학습하게 되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바는 모어 화자와 같이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목표어를 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2언어 학습자가 고급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목표 언어 문화 속에서 성장한 그 사회의 구성원과 같이 대화의 상황과 상대에 맞는 담화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모어 화자와 제2언어 학습자가 구사하는 발화가 어떤 점에서 상이한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논쟁은 어린 아이의 대화에서부터 성인의 법정 토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한국어 학습자들도 초급의 일상 논쟁으로부터

중·고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쟁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논쟁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는 것은 담화 상황을 유지해 가는 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조위수·조완철, 2013).

논쟁 담화는 ‘대립’과 ‘협력’의 관점에서 정의되어 왔다. Schiffrin(1987:8, 38)에서는 논쟁 담화를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담화, 화자들이 말다툼을 일으킬 만한 입장을 지지하는 담화로 일컫는다. 비슷한 맥락에서 Govier(1992)는 논쟁을 일련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 요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설득하는 언어 현상으로 본다. 이처럼 Schiffrin(1987)과 Govier(1992)에서는 논쟁 담화를 ‘대립(opposition)’을 전제로 설명한다. 이는 O’Keefe & Benoit(1982:16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립 관계가 논쟁을 형성하고, 논쟁 내에 일관된 행동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한편 Jackson & Jacobs(1982)는 논쟁을 규칙들로 구성된 하나의 사회적 행동(social activity)이며, 대화 참여자들 간의 공동 작업(collaborative work)으로 정의한다. 이는 논쟁을 ‘의견 대립’의 관점에 더하여, 상이한 의견을 가진 대화자들이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해 가는 ‘협력 과정’의 개념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논쟁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필연적인 요소라는 데 주안점을 두어, 이 연구에서는 논쟁을 후자의 입장에서 살필 것이다.

논쟁 담화의 유형과 관련한 논의는 Schiffrin(1987)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논쟁 담화를 수사적 논쟁(rhetorical argument)과 대립적 논쟁(oppositional argument)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수사적 논쟁은 화자가 지지하는 입장을 독백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립적 논쟁은 서로의 입장이 다른 둘 이상의 대화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담화 형식이다.

그리고 논쟁 담화는 격식성과 형식성의 측면에서 격식적 논쟁 담화와

비격식적 논쟁 담화로 구분된다(조위수·조완철, 2013). 격식적 논쟁은 하나의 논제를 두고 화자를 찬반으로 나누어 서로의 의견을 내세우는 토론(debate)을 의미한다. 반면 비격식적 논쟁은 참여자들이 특정 주제로 자유로이 상호작용을 펼치는 논쟁의 한 유형이다. 이는 유동엽(2003)에서 언급한 토론·토의와 같이 대립적인 양쪽간의 장르화된 논쟁 담화와 일상 대화 도중에 발생하는 비교적 가벼운 논쟁 담화의 유형과 상통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경험하게 되는 논쟁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정형화되고 장르화된 논쟁 담화, 즉 토론의 형식을 띤 논쟁 담화를 ‘격식적 논쟁 담화’, 비교적 일상 대화에서 발생하는 자유롭고 정형화되지 않은 논쟁 담화를 ‘비격식적 논쟁 담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 논쟁 담화 전략은 끼어들기, 질문과 같은 개별 전략으로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김수경, 2007; 조위수, 2011; 조위수·조완철, 2013; 조위수·윤남주, 2013; 정명숙, 2013; 이지현, 2013; 조완철, 2014).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의 논쟁 담화에 나타나는 전략을 개괄적으로 보여 주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조위수·조완철(2013)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논쟁 담화 전략이 교재 집필자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어 학습자에게 보다 검증된 담화 전략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집단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격식적 논쟁 담화 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비격식적 논쟁 담화 전략은 전략적 특성에 따라 다기능적 논쟁 전략, 비대립적 논쟁 전략, 기타 논쟁 전략으로 구분된다. 세 영역을 모두 다루기에는 지면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쟁 담화 전반에 나타나는 다기능적 논쟁 전략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

다기능적 논쟁 전략은 구어(spoken language) 발화에 빈번하게 출현하여 담화 상황에서 다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송경숙(2004)에서

는 반복, 질문, 코드 전환(code-switching)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코드 전환은 송경숙(2004)의 논의를 제외하고는 담화 상황에서 다기능을 담당한다는 논의가 부족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반복과 질문이 가지는 전략적 기능은 김정선·장경희(2004), 노은희(1999), 전영옥(1999), 조위수(2011), 조위수·조완철(2013), 조위수·윤남주(2013), 황은하(1999)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논쟁의 흐름을 전개해 나가는 거시 전략과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미시 전략으로 구분하여 반복과 질문의 다기능을 살필 것이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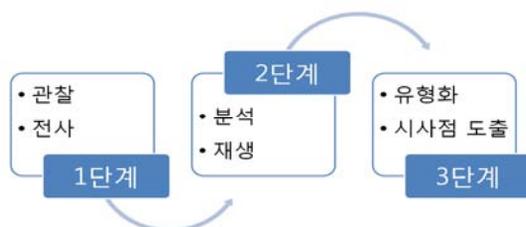
이를 통하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전략 사용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어 학습자 집단이 논쟁 담화를 구사하는 데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필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교수 가능한 담화 전략 목록을 도출하고 한국어 교육에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및 절차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논쟁 담화 전략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사회언어학(interactional sociolinguistics)을 활용할 것이다.<sup>2)</sup>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은 언어가 통용되는 사회와 문화

- 
- 1) 한국어 교육에서 논쟁 담화 전략은 끼어들기, 질문, 반복 등의 개별 전략을 위주로 그 기능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연구에서는 논쟁 담화 전반에 나타나는 반복과 질문의 두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한국어 학습자의 논쟁 담화 전략을 개괄적으로 보여 주는 데에는 기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비격식적 논쟁 담화 전략을 다기능, 비대립적, 기타 논쟁 담화 전략으로 구분하고 담화 상황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다기능 전략의 하위범주를 다루었다는 점이 기존 선행연구와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 2) 담화 분석 방법에는 화용론, 화행 이론, 대화분석, 상호작용 사회언어학,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변이 분석 등이 있다. 각 접근법들은 분석의 초점을 어디에

속에서 대화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기능과 의미를 실현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언어권별 담화 전략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담화 분석 절차는 Tannen(1984:38)의 상호작용 사회언어학 연구 순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이다.<sup>3)</sup>



<그림 1>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는 논쟁 담화의 유형 중 대학(원)생들의 비격식적 논쟁 담화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해 갈 것이다. 일상 대화에 나타나는 비격식적 논쟁은 격식적 논쟁 담화에 비하여 일반적인 구어의 특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서는 비격식적 논쟁 담화 분석을 통해 중국어권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담화상에서 어떤 논쟁 전략을 펼치는지, 선호하는 대화 스타일과 체면 유지 기술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표 1>은 피험자 및 연구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이다.<sup>4)</sup>

두는지에 따라서 연구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은 언어를, 그것이 가진 형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언어가 속한 사회와 문화까지 통찰하여 다루며, 담화 전략, 대화 스타일, 체면 이론을 주요 개념으로 한다.

- 3) Tannen(1984)의 연구 절차는 관찰, 전사, 분석, 재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유형화 단계와 시사점 도출 단계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 4) KM은 한국 남성, KF는 한국 여성, CM은 중국 남성, CF는 중국 여성을 의미한다.

<표 1> 피험자 정보 (한국어 모어 화자 - 한국어 학습자)

연번	논쟁 주제	대화자	역할	나이	관계
1	남성전업 주부	KM1	찬성	20대 초반	선·후배
		KF1	반대	20대 초반	
2	남성전업 주부	KM2	찬성	20대 초반	선·후배
		KF2	반대	20대 초반	
3	남성전업 주부	KF3	찬성	20대 초반	친구
		KF4	반대	20대 초반	
4	조기유학	KF5	찬성	20대 후반	자매
		KF6	반대	20대 후반	
5	조기유학	KF7	찬성	20대 초반	친구
		KM3	반대	20대 후반	
6	남성전업 주부	KF8	찬성	20대 초반	선·후배
		KM4	반대	20대 초반	
7	조기유학	KF9	찬성	20대 초반	선·후배
		KF10	반대	20대 초반	
8	남성전업 주부	KM5	찬성	20대 초반	친구
		KF11	반대	20대 초반	
9	남성전업 주부	KF12	찬성	20대 초반	친구
		KM6	반대	20대 초반	
10	남성전업 주부	KM7	찬성	20대 중반	선·후배
		KF13	반대	20대 초반	

연번	논쟁 주제	대화자	역할	나이	관계
1	조기 유학	CM1	찬성	20대 초반	친구
		CF1	반대	20대 초반	
2	조기 유학	CM2	찬성	20대 초반	친구
		CF2	반대	20대 초반	
3	조기 유학	CF3	찬성	20대 초반	선·후배
		CF4	반대	20대 초반	
4	조기 유학	CF5	찬성	20대 후반	친구
		CF6	반대	20대 후반	
5	조기 유학	CF7	찬성	20대 초반	선·후배
		CF8	반대	20대 후반	
6	조기 유학	CF9	찬성	20대 초반	친구
		CF10	반대	20대 초반	
7	조기 유학	CF11	찬성	20대 초반	선·후배
		CF12	반대	20대 초반	
8	조기 유학	CF13	찬성	20대 초반	친구
		CF14	반대	20대 초반	
9	조기 유학	CF15	찬성	20대 초반	친구
		CF16	반대	20대 초반	
10	조기 유학	CF17	찬성	20대 중반	선·후배
		CF18	반대	20대 초반	

피험자는 부산 지역 대학에서 수학하는 대학(원)생들로, 한국인 피험자는 부산, 서울, 대전, 울산, 경기도, 전남 등 다양한 지역 출신으로 구성하였으며,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의 고급 학습자들로 구성하였다. 논쟁 담화 주제는 피험자들로 하여금 조기유학과 남성전업주부 중 택일하게 하였다.<sup>5)</sup> 자연스러운 담화 자료 채집을 위하여 녹음은 친밀한 화자 간 자유 논쟁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연구자의 개입 없이

5)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모두 ‘조기유학’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주제에 대한 친숙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중에는 동일 주제로 격식적 논쟁 담화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논쟁 담화에 나타나는 전략의 양상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논쟁 담화 주제는 연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한다.

강의실, 동아리방, 기숙사 등 피험자들이 편하게 녹음할 수 있는 공간에서 녹음을 진행하였다. 녹음 시간은 15~20분으로 한정하였으며, 준언어 분석은 wavesurfer version 1.8.5를 활용하였다. 전사기법은 텍스트식 문화화 방법을 사용하되, 동시 발화 전사기호를 활용하여 이 방법이 지닌 한계점을 보완하였다.<sup>6)</sup> 전사기호는 <표 2>와 같다.

<표 2> 전사기호

전사기호	의미	전사기호	의미
..	휴지(0.5초 미만)	↗	상승어조
...	휴지(0.5초 이상)	↘ ↗	하강상승어조
....	휴지(1초 이상)	::	모음의 길어짐(길게 발음)
.....	휴지(1.5초 이상)	#	겹쳐 말하기
.....	휴지(2.5초 이상)	( )	말투나 상황에 대한 설명
밑줄	논쟁 전략 및 표현	진한 글씨	강조
↘	하강어조	/ /	현실 발음

#### 4.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다기능 논쟁 담화 전략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담화에서 질문과 반복은 논쟁의 흐름을 전개시키는 거시 전략으로 활용된다.<sup>7)</sup>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KF1: 어:: 최근 남성들이:: 전업 주부를 하는 그:: 비중이:: 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 6) 텍스트식 문자화 방법은 한 명의 화자에 국한하여 발화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문자화한 뒤, 다음 화자의 발화를 문자화한 것으로, 대화자들 사이의 끼어들이나 동시 발화의 미묘한 시간 차이 등은 분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노은희, 1999).
- 7) 질문은 언어학적 현상의 하나로 의문문과 구분된다. 질문은 의미적 역할, 의문문은 통사적 특성이 강조된 개념으로, 이 연구에서는 질문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역할을 아우르며 전략적 특성을 살필 것이다.

KM1: 음:: 나는 남성들이 전업 주부 비중이 높아지는 데:: 우리사회가  
성차별이 점점 없어지는 거라구::... 봐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것  
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

KF1: 어::... 어떤 점에서 남녀평등과 남성의 전업 주부 비중이 관련  
있다는 거야?

(중략)

KF1: 어::... 그렇 그렇다면::...어 너는 남성의 전업주부 비중이 높  
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2) KF4: 근데::.. 요즘에 뭐지? .....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하잖아?

KM3: 응~

KF4: 둘이 맞벌이다::

KM3: 응~

KF4: 그러면::... #그만둔다고 할 때::

KM3: #응~ 응~

KF4: 사람들이 거의 생각할 때.. 엄마가 그만둔다고 생각하지 않냐?

KM3: 그렇지::~

(3) KF4: 아니 야 근데 여자는::.. 약간..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KM3: 어

KF4: 약간 좀..... 잘 하잖아?

KM3: 어...본능적으로

(1)에서 KF1은 질문을 통해 상위 화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본인 반복  
과 타인 반복, 그리고 질문을 사용하여 담화를 이어가고 있다. KF1은 자  
신의 첫 질문에 KM1이 일반적인 남성 전업 주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  
자, 다시 한 번 질문을 통해 KM1의 의견을 물음으로써 논쟁의 흐름을  
진행시킨다. (2)와 (3)에서는 ‘근데’라는 표현을 통해 하위 화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하위 화제 도입에 앞서 예비 질문을 함으로써 새로운  
하위 주제로 화제의 흐름을 옮겨 가고 있다.

질문의 미시 전략은 설명 요구, 의견 피력, 반박, 동의 유도, 시간 벌기, 확인, 반응, 동의 등의 기능으로 활용된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KF3: 남성 전업 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넌 어떻게 생각 하나↗  
 KF4: 난.. 반대 #(웃음소리)  
 KF3: #(웃음소리) 왜 반대데↗ (웃음소리)  
 KF4: .....일단..... 남자는::↘↗  
 KF3: 음↘  
 KF4: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KF3: 그건 너무.. 편견::..... 아닌가↗  
 KF4: .....의 편견..이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남자 뭐..... 그런 거 있잖아↘↗  
 KF3: 남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웃음소리)
- (5) KF2: (중략) 솔직히 그게::..... 뭐라 해야 되지↗ 잘못된 건 아닌데::...  
 뭔가.. 떳떳하::...앗..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약간 좀 그런 건 있을 것 같애↘ 약간 사람들 시선↗
- (6) KF2: 근까:: 미안하지::↘↗ .. 근데:: 미안한데::..... 그런데::.....  
 KM2: 시선이:: 두렵다고↗  
 KF2: 응↘
- (7) KM2: (중략) 내 남편은::... 다른 남편들 보다는::..... 좀 다른 직업이니까::..... 역으로 더...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KF2: 자랑한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 (8) KF4: (웃으며) 애들 기저귀 갈아주고 싶은::..... 아아빠 없#을 걸↗  
 KF3: #아 아기  
 얘기를 좋아하면 그럴 수 있어↘  
 KF4: 아 그래↗

(4)의 담화에서는 질문의 여러 기능을 살필 수 있다. KF3은 남성 전업 주부에 반대하는 상대의 의견에 ‘왜 반대네?’라는 질문을 통해 상대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그러자 KF4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이에 KF3은 ‘그건 너무 편견 아닌가?’라는 질문을 통해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이어 KF4는 또 질문을 통해 상대에게 동의를 유도한다. (5)에서는 ‘뭐라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시간을 벌고 있다. (6)은 상대가 말을 머뭇거리자 KM2가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7)에서는 ‘사랑한다고?’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은 질문 표현을 통해 상대에 동의를 뜻을 전달한다.

본인 반복의 미시 전략은 구체화, 화제 연결, 시간 벌기, 강조, 확인, 나열, 발화기회 차지, 구정보 재생, 호응, 맞장구, 도움 요청에 활용된다. 다음은 그 예를 보인 것이다.

- (9) KM4: 그때 그:... 어머니:... 그:: 여자:: 쪽에 어머니는
- (10) KF7: 근데 조기유학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가기 때문에:: 부모님  
도 같이 가지 않나<sup>↗</sup> ..아빠는 #기러기  
KM3: #case by case인 것 같애↘  
KF7: 기러기일 수도 있는데
- (11) KF2: (중략) 솔직히 그게::..... 뭐라 해야 되지<sup>↗</sup> 잘못된 건 아닌  
데::... 뭔가.. 떳떳하::...앗.. 뭐라 해야 되지<sup>↗</sup>.. 뭔가 약간 좀  
그런 건 있을 것 같애↘ 약간 사람들 시선<sup>↗</sup>
- (12) KF2: 근데 이모가 워낙 일을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  
진짜 막:: 워커홀릭↘
- (13) KF4: (웃으며)애들 기저귀 갈아주고 싶은.. 아# 아빠 없을 걸  
KF3: #아 아기를 애기를  
좋아하면 그럴 수 있어↘  
KF4: 아 그래<sup>↗</sup>



(9)에서는 KM4는 상대에게 대상을 분명히 하는 자기 편집(self-edition)의 과정에서 반복을 활용한다. (10)에서는 고-참여 스타일인 KM3이 KF7의 발화에 끼어들자, 화자는 화제를 연결하기 위하여 본인의 발화를 반복하며 화제를 이어간다.<sup>8)</sup> (11)은 화자가 발화 시간을 벌기 위해 특정 표현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에서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코드 전환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13)은 KF4가 자신의 의견을 확인하는 가운데 반복이 사용된 것이고, (14)는 반복을 활용하여 나열의 기능을 보여 준다. (15)는 발화기회를 차지하기 위하여 ‘근데’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고, (16)에서는 상대에게 발화 내용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선행 표현을 반복하는 양상이다. (17)의 경우는 상대의 발화에 동일 표현을 사용하여 호응하고 있으며, (18)은 맞장구를 치고 있다. (19)는 KF2가 해야 할 말을 머뭇거리며 반복하자, 상대가 대신 말을 해 주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반복 표현과 휴지가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맥락화 단서로 작용한다.<sup>9)</sup>

한편 타인 반복의 미시 전략은 강조, 동의, 구체화, 구체화 요구, 확인, 반박, 발화기회 차지, 반응, 맞장구 등에서 활용된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0) KM7: 앓 지금도/지금또/ 보면은:: 없는 건 아니잖아~ 남성전업  
주부라고 해서:..... 한국에도:: 그런 남성 전업주부가:.....

있어~

KF13: 있어~

8) Tannen(1984)에서는 대화 스타일을 대화를 진행해 가는 방식에 따라 고-참여 스타일(high-involvement style)과 고-사려 스타일(high-considerateness style)로 구분한다.

9) 맥락화 단서는 청자로 하여금 상호작용 과정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행위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청자가 맥락적 예상(contextual presupposition)을 하는 데 기여하는 언어적 형태의 특성을 말한다(Gumperz, 1982:131).

KM7: 있어↘

KF13: 있어↘

KM7: 당연히 있지↘

KF13: 당연히 있지↘

(21) KM2: 그건 니가 창피:.....하면 오히려 남편한테 미안할 것 같애↘

KF2: 근까:: 미안하지::↘↗

(22) KF6: 그럼 혼자 보낼 생각하나↗ 만약에 가게 되면↘

KF5: 근까 만약 가게 되면 인제 그.....쪽에 친척이 있는 데로::

보내려고↘

(23) KF3: 남성 전업 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년 어떻게

생각하니↗

KF4: 난.. 반대 #(웃음소리)

KF3: #(웃음소리) 왜 반대데↗(웃음소리)

(24) KF5: 뭐 기회가 되면::↘

KF6: 음↘ ..... 기회가 되면↗

KF5: 음↘

KF6: 근데 반대는 안 하네↗

(25) KF7: 그래도:..... 잤다 오면 영어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영어 꼭 해야 되잖아↘

KM3: 근데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KF7: 너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 우리#나라에서는

KM3: #근데::

KF7: 거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계속/계속/ 배웠잖아↘

KM3: 근데 그 영어는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잖아::↘

KF7: 근데 잘해 우리::↗

(26) KM2: (중략) 내 남편은:.... 다른 남편들 보다는:..... 좀 다른 직업

이니까:..... 역으로 더...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KF2: 자랑한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27) KF4: 금까 맨날 싸우잖아::~ ....(웃으며)너 뭐 하냐고::~

KF3: (웃으며)집에서 뭐 했냐고::~

(20)에서는 상대의 끝 발화를 반복하며 한국에 남성전업주부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21)은 반복을 통해 상대에게 동의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22)의 경우는 상대의 발화를 가지고 와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23)은 상대에게 구체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24)는 반복을 통해 선행발화를 확인하고 있으며, (25)는 반박의 의사를 전달한다. 또한 (25)에서는 ‘근데’의 반복을 통해 대화자가 서로 발화기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26)에서는 선행 발화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함으로써 상대에게 반응을 보이며, (27)은 선행 발화 표현을 따라함으로써 상대에게 맞장구를 친다.

이렇듯 질문과 반복은 담화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담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의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다기능 논쟁 담화 전략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다기능 논쟁 담화 전략

전략		세부 기능	
거시 전략	질문	상위 화제 도입, 하위 화제 도입, 화제 흐름 전개	
	반복	하위 화제 도입, 화제 흐름 전개	
미시 전략	질문	설명 요구, 의견 피력, 반박, 동의 유도, 시간 벌기, 확인, 반응, 동의	
	반복	본인	구체화, 화제 연결, 시간벌기, 강조, 확인, 나열, 발화기회 차지, 구정보 재생, 호응, 맞장구, 도움 요청
		타인	강조, 동의, 구체화, 구체화 요구, 확인, 반박, 발화기회 차지, 반응, 맞장구

## 5.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다기능 논쟁 담화 전략

중국어권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에서도 질문과 반복은 논쟁의 흐름을 전개시키는 거시 전략으로 활용된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8) CF9: 요즘 어린 아이는.. 요즘..요즘.. 아이들이..어릴 어릴 때부터.. 음.. 요즘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

CF10: 네.

CF9: 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CF10: 어 그.. 아이는.. 진짜 불쌍해요~

(29) CF13: 음.. 근데 우리... 좀..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는 음.. 음.. 생각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음.. 생각하는지.. 얘기 하자~

CF14: 그래::~

CF13: 제 생각에는 어.. 조기교육은... 아이들에게... 좀 부담이 좀 돼요~

CF14: 왜 부담이 되는데?

(30) CF3: (중략) 학원비도 들고:: 뭐:: 진짜 원어민처럼 말하..려고 싶으면 원어민:: 어 그 선생님 찾아야 되고 그 비용도... 그 저렴하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그 언어 제대로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

CF4: 근데::... 외국 가면::... 그 좋은 유치원 가면:: 원 그거.. 우리 아이들이 다른.. 다른 애기한테 왕따를

CF3: 음

CF4: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28)에서는 CF9가 상대에게 상위 화제에 대한 배경 설명 후 질문을 통해 상대의 발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리고 (29)는 조기 교육에 대한 상

위 화제 제시 후, 반복과 질문을 통해 자녀들이 가지는 조기 교육의 부담성에 관한 하위 화제로 화제의 흐름을 진행시킨다. (30)에서는 질문을 통해 교육비에 대한 하위 화제에서 해외에서 자녀의 따돌림에 관한 문제로 화제가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질문의 미시 전략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 동일하게 설명 요구, 의견 피력, 반박, 동의, 동의 유도, 시간 벌기, 확인, 반응 등의 기능이 발견된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CF5: 어음:: 그 취직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없어요<sup>↗</sup>  
 CF6: 아:... 취직보다는:..... 어:: 아마 먼저 어 아마 결혼..하고:: 애  
 가 먼저 나올 거예요↘
- (32) CF7: 그리고.. 또 외국에.. 얘기를 보내면:: 으 언어뿐만 아니라::  
그 선진국 나라를 보내면:: 선진국 나라의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서::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sup>↗</sup>  
 CF8: 근데 언니 그 기초적 교육.... 그 상의하면 우리 중국의 기초..  
교육 낮지 않아요<sup>↗</sup> 세계적으로 중국 어 그 초등학생이나 중  
학생의 수학 성적이 최고이는 거 몰몰몰 모르셨어요<sup>↗</sup>
- (33) CF3: 생각하고 나서는.. 반대인데:: 그래도:: 뭐 외국에:: 보내는  
거 좋은 점..도 많 많.. 말씀하신 대로도 많이 있겠죠::<sup>↘↗</sup>
- (34) CF3: 만약에 외국에 보내면:: 자기 의지도 아니잖아요↘ 그냥 부  
 모님::돈 있어서 보내는 거지↘ 맞죠<sup>↗</sup>
- (35) CM2: 하지만 제 생각에는.. 부모님은 애기에게 해외에 보내는 것  
 이.. 조기 교육.. 애기는 조기 교육 위해서는.. 그냥.. 그 뭐  
야<sup>↗</sup> .. 그거 뭐지<sup>↗</sup> 조기.... 더 많은 거 같은데..
- (36) CF14: 그 아이들이 외국에서:... 뭐.. 외국에서:..... 그 외국에서  
 언어를 공부하게 되면:: 자기의 모국어를.....  
 CF13: 배울 수 #없다고요<sup>↗</sup>  
 CF12: #네

- (37) CF10: 요즘 아이.. 어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릴 때부터.. 외국  
 으로 많이 나가잖아.. 내 생각에는..... 음 내...음 그 아이  
 는 진짜.. 진짜.. 불쌍해~  
 CF9: 불쌍해~

(31)은 상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질문을 활용한다. (32)에서는 질문을 통해 CF7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에 맞서 CF8은 질문과 강한 어조로써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여기서 강한 어조는 상대의 의견에 대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맥락화 단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와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소극적 체면 유지 기술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CF8의 경우는 대화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담화 전반에 걸쳐 자신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상대에게 인정받으려는 적극적 체면 유지를 선보이는 경향이 있다.

한편 (33), (34)에서는 질문을 통해 상대에게 동의의 뜻을 전달하고, 상대의 동의를 유도하며, (35)는 시간을 벌고 있다. 그리고 (36)에서는 CF14가 발화를 머뭇거리자, CF13이 상대가 발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발화 내용을 확인한다. (37)에서 CF9는 조기 유학 자녀가 불쌍하다는 선행 발화에 질문을 통해 상대에게 반응을 보인다.

한국어 학습자의 본인 반복의 미시 전략은 바로잡기, 구체화, 화제 연결, 시간 벌기, 강조, 확인, 강요, 나열, 발화기회 차지, 구정보 재생, 호응, 맞장구, 도움 요청 등으로 활용된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8) CM1: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다른 나라에서 나라에 보내면:: 자  
기의 나라..를 자기 나라의 언어를.... 그 공부 시간이 부족  
 하잖아요~  
 (39) CM2: 제가 제 생각은... 그거 뭐야~ .... 조기 교육 해외 조기 교

육은:: 애기에게 좋지 않은데::↗

(40) CF7: 음 음 (웃음) 마음 아파요↘

(중국어) 긴 휴지 (15초)

CF7: 마음이 아파요↘ 음 중국에서 이런 말 있어요.

(41) CF2: 근데.... 요즘.... 취업.. 취업에 있어서.. 어:: 좁::.. 좁:: 어렵  
하지 않을까요↗

(42) CF18: (중략) 어떤 애가 아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생겨 생겨서  
너무 외로워:: 너무..우울해:: 뭐 뭐 병도 생길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은 좀 문제지↘

(43) CF18: 난 반대해::↘

CF17: 왜요↗ 언니

CF18: .....조기 유학....조기 유학 있잖아:: 너무 일찍::.. 외국에 보  
내서 공부하는 거잖아↘ 난 반대야↘

(44) CF6: 애가 먼저 나올 생각이라고↗ 생각 어 뭐 뭐 (웃음) 말해↘  
말해↘

(45) CF18: 사정이 사정이.. 어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되고::↘ 뭐 이런 저  
런 학교에서 선생님도 말씀..드려야.. 장을 받아서 자기 나  
라에서 돌아갈 수 있잖아↘

(46) CF16: 그래도.. 이런.. 거....

CF15: 제 #생각에는

CF16: #거기 가서::.....스스로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CF15: #제 생각에

는 어렸을 때 일단::..자기 원하는 거..하고

(47) CF12: 그리고요↘ 그 아이들이 외국에서.. 뭐 외국에서::..... 그  
외국에서 언어를 공부하게 되면

(48) CF13: 그리고..... 만약에..어:: 여덟살:: 아.. 아이는.... 학원에 가서  
외국인 학원에 가서

CF14: 응

CF13: 외국 외국 으 학원에서:: 원어민 다 원어민이야↘

CF14: 응

(49) CF14: 왜냐하면:: 외국 나가면은 외국의 교육도 있잖아요↘ 어떤 아이를.. 그 외국의 교육을 맞지 않을 상황도.. 있 있잖아요↘

CF13: 예↘

CF14: 그쵸↗

CF13: 있어요↘ 많이 있어요↘

(50) CF16: 왜냐면 요즘::..... 사회.. 이렇게::..... 이렇게...게::↗

CF15: 진화하고

CF16: 어어어↘

(38)은 문맥에 맞는 표현을 찾아 가는 가운데 반복이 활용된다. 바로 잡기 기능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모어 화자의 경우는 단순 실수를 교정하는 데 이 기능이 주로 사용되는 반면, 한국어 학습자는 반복을 통해 바로잡기를 하는 가운데 시간을 벌고, 자기 편집의 과정을 거쳐 발화를 생성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이 기능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39)는 반복을 통해 발화 내용을 구체화하고, (40)은 대화 단절이 발생한 가운데 CF7이 다시 화제를 잇는 과정에서 반복을 사용하고 있다. 반복을 통해 (41)은 발화 내용을 생각할 시간을 벌고, (42)는 화자의 발화를 강조한다.

그리고 (43)은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확인하는 가운데 반복을 활용하고, (44)는 상대의 발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화자가 청자에게 웃음을 동반하며 반복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발화를 강요한다. 한편 (45)는 반복의 나열 기능을 보여 주고, (46)에서는 발화 기회를 가져 오기 위해 반복을 사용하며, (47)에서는 반복을 통해 생각할 시간을 번 후 후행 발화를 이어가기 위해 반복을 활용한다. (48), (49)는 반복을 통해 상대에게

호응과 맞장구의 기능을 보여 주고, (50)에서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은 화자가 반복 표현과 상승 억양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도움을 청한다. 여기서는 억양이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맥락화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에 나타난 타인 반복의 미시 전략은 동의, 강조, 구체화, 구체화 요구, 확인, 반박, 발화기회 차지, 반응 등의 기능을 실현한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51) CF16: 상황 맞춰서 하는 거  
 CF15: 맞을 거 같애<sup>↗</sup>  
 CF16: 응 맞는 거 같아<sub>↘</sub>
- (52) CF5: 어 (웃으며) 맞긴 맞는데.... 어 근데 지금 그.. 지금 아니고..  
 (웃음) 그 아이의(웃음) 할머니 할아버지:: 그 가족들이 그  
 이런 생각 다른 생각이 없어요<sup>↗</sup> ..... 반대하는.... 그... (웃  
 음) 반대하는.. 그런 거 없어요<sup>↗</sup>  
 CF6: 어 어 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연히 그거 반대하겠죠<sub>↘</sub><sup>↗</sup>
- (53) CF1: 아::<sub>↘</sub><sup>↗</sup> .... 집에 돈이 많으면 그건 문제 아니에요<sub>↘</sub>  
 CM1: 만약에 돈이 없으면은<sup>↗</sup>  
 CF1: 돈이 없으면은::.... 아이들이 아 아르바이트 많이 하면/해면/  
되잖아<sub>↘</sub>
- (54) CM1: 그리고::<sup>↗</sup> 어렸을 때부터:: 다른 나라에.. 보내면:: 그:: 그  
비용이.. 너무 많잖아<sub>↘</sub>  
 CF1: 비용<sup>↗</sup> 무슨 비용<sup>↗</sup>
- (55) CF1: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어 공부하면:: 외국어  
 를 잘 배울 수 있어요<sub>↘</sub> 모국어처럼<sub>↘</sub>  
 CM1: 그 외국어를 잘 배울 수 있지만::... 그 동시에.. 자기 나라  
의.. 언어를.. 잘 못 배울 수 있잖아요<sub>↘</sub>  
 CF1: 왜:: 자기 나라의 모국어 잘 못 배울 수 있어요<sup>↗</sup> 어 외국  
 으로 유학하기 전에:: 자기 나라에서 모국어 잘 배우면 되

잖아요~ 부모님한테~

- (56) CF13: 예..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그 총.. 문화를 배우잖아요~  
 그 똑같은 거:: 자기나라에서도.. 문화를 배우고:: 그 다른 나  
 라의 문화#도 배우잖아요~

CF14: #근데  
 그 조기 유학/초기 유학/은 그 아이가.. 이미 여섯 달 열  
 여섯 살.. 일곱 살.. 할 때예요~

- (57) CF10: 요즘 아이.. 어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릴 때부터:: 외국  
 으로 많이 나가잖아:: 내 생각에는..... 음 내....음 그 아이  
 는 진짜.. 진짜.. 불쌍해~

CF9: 불쌍해~

상대 발화를 반복함으로써 (51)은 상대방에게 동의의 의사를 전하고, (52)에서는 ‘당연히’라는 부사어와 함께 강조의 의미를 띤 동의의 표현을 전달한다. 한편 (53)에서는 반복의 구체화 요구와 구체화 기능을 살필 수 있고, (54)는 상대 발화의 일부를 반복함으로써 선행 발화 내용을 확인하며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한다. 그리고 (55)에서는 반복을 통해 상대방에게 강한 반박 의사를 전달하는데, CF1의 경우도 발화 과정에서 본인의 체면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 체면 유지 기술을 사용한다. (56)에서는 발화의 기회를 가져오기 위해 반복을 사용하고, (57)은 조기 유학 자녀들이 불쌍하다는 선행 발화에 반복을 통해 놀람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중국어권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에서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이 다양한 다기능 논쟁 담화 전략이 발견된다. <표 4>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lt;표 4&gt;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다기능 논쟁 담화 전략

전략		세부 기능	
거시 전략	질문	상위 화제 도입, 하위 화제 도입, 화제 흐름 전개	
	반복	하위 화제 도입, 화제 흐름 전개	
미시 전략	질문	설명 요구, 의견 피력, 반박, 동의 유도, 시간 벌기, 확인, 반응, 동의	
	반복	본인	바로잡기, 구체화, 화제 연결, 시간 벌기, 강조, 확인, 강요, 나열, 발화기회 차지, 구정보 재생, 호응, 맞장구, 도움 요청
		타인	동의, 강조, 구체화, 구체화 요구, 확인, 반박, 발화기회 차지, 반응

## 6.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고급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다기능 논쟁 담화 전략을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쟁 담화 전략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두 집단의 다기능 논쟁 전략은 질문과 반복에서 살필 수 있다. 논쟁 담화에서 질문과 반복은 상위, 하위 화제 도입 및 화제 흐름을 전개하는 거시 전략과 담화 전반에 걸쳐 정보 전달과 관계 및 대화 유지를 위한 다양한 미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두 집단에서 발견되는 논쟁 담화 전략 목록은 <표 4>와 <표 5>에서처럼 몇 기능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sup>10)</sup>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의 논쟁 담화 전략의 양상은 같은 기능이라 하더라도 발화 스타일과 체면 유지 기술에서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발화

10) 그 원인은 한국어 학습자 집단이 고급 학습자들로, 한국어 교실과 실생활에서 직, 간접적으로 논쟁 담화 전략을 학습하였을 가능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Bialystock(1990), Kellerman(1991) 등 제2언어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논의에서 학습자에게 전략을 굳이 지도하지 않더라도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 성장함에 따라 전략 사용 능력도 향상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스타일에 있어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고-참여 스타일, 고-사려 스타일의 특성이 모두 발견되었으나, 말의 속도가 빠르고 말차례 전환이 잦은 고-참여 스타일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체면 유지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s)가 발생했을 때 여성이지만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체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학습자 개인을 살피면,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고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담화 전략을 담화 상황에 맞게 적절히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몇 가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8) CF13: 내가.. 내가 조기 유학을 찬성하는 거예요:~

(59) CM2: 제가 제 **생각은**... 그거 뭐야~ .... 조기 교육 해외 조기 교육은:: 애기에게 좋지 **않은데**:: 왜냐하면... 애기는 언어 배우는 데는.. 만약에 해외로 가면... 그냥 모국어를 배울 수 잘 못 배우는데...그래서... 또.. 모국.. 문화도.. 잘 못 받았는데~ .. 그래서.. 나중에... 자기 나라에..서.. 다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고.. 인정하는 거는:: 너무 약해 보여서~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조기 교육은.. 애기에게 좋지 않은데~

CF2: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애기.. 애기를.. 어 해외에 보내는 것은.. 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어.. 외국에서.. 어 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어.. 또렷.. 어.. 넓어지고... 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앞으로 국제적 인재.. 국제적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성.. 합니다~

CM2: 그래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애기에게 정말 중요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예요~ 왜냐면..... 애기는 자기 자기 나라에서도.. 좋은 교육은 받을 수

있어요::~ 그.. 그래서 옛 옛날부터 **지금까지**.. 도 너무.. 너무 많이 위 위대한 사람도.. 자기.. 나라에서 열심히 배운 거.. 그냥 위대한 사람 된 거야~ 그래서 꼭 해외여행 가는 거는 필요 없어요~

- (60) CF11: **근데**:: 제 생각에 가족::은... 물론 가족::이 저하고 가족들 이랑 같이 지내면:: 가족들 아무래도 통제를 잘 되니 됐으니 되니까::..... 게 어 애기 나쁜 방향을 방 그게.... 방해할 수도 방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가족도**:: 이게 교육을 잘 되는 가족도 있고.. 자식도 교육도 잘 못되는.. 가족도 있어요::~ 그리고:: 어 **만약에** 가족들 조금/조금/ 문제 있으면 얘기도 똑같이 따라가면:: 똑같이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 국내에 있더라도:: 가족들 만약에 바쁘면.. 똑같이:: 외국..에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가족은.. 부모님 너무 바빠서:: 뭐 이모집이나 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놔두고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이 많아서서::..... 관리도 잘 못해요::~ 그럼 얘기도..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똑같이 행동하 그게 음::..... 관리 없이.. 음:: 자유롭게 자기..그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음:: 그래서..... 음:: 그리고 음::..... 저.... 음.. 부모님.. 일단 이렇게 음 (웃음)

CF12: 음 아까 말하는 거

(58), (59)는 한국어 학습자가 상위, 하위 화제를 도입하고 화제를 전개해 가는 부분에서 담화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보통 (1)에서와 같이 화제에 대한 배경 설명 후 논쟁 주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58)을 살펴보면 배경 설명 없이

논쟁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59)는 두 화자가 조기 교육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가운데, 상대 발화에 ‘그래요?’라고 반응을 보이고는 있으나, 상대 발화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상대 발화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화제를 전환하거나 확장하여, 논쟁의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한편 (60)에서는 CF11이 자신의 의견을 1분 35초 발화하는 동안, 상대는 그 어떤 호응이나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어 담화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 부족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대립적 논쟁 전략과 기타 논쟁 전략을 논외로 하고 다기능 논쟁 전략만을 다루고 있어, 한국어 학습용 논쟁 담화 전략 목록을 체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화 분석을 통해 다기능 논쟁 전략 목록을 <표 4>, <표 5>와 같이 정리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화 양상의 차이를 살핀 것은, 전략적 능력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담화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 소략하나마 일조할 것으로 본다.

전략적 능력은 학습자가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며, 상대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중요한 의사소통능력의 요소이다.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담화 상황에서 보다 능숙한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능력에 주목하고 전략 훈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Tarone(1984), Tarone & Yule(1989), Dörnyei(1995) 등에서는 제2언어 학습자에게 전략을 적극적으로 교수할 것을 주장하며, 전략 훈련을 통해 학습자들의 전략적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전략적 능력은 의사소통능력의 다른 요소에 비해 도외시되어 왔다. 그 결과 교수와 학습을 이어주는 매개체, 즉 교재에는 전략적 능력이 배제되거나 연구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 선별된 몇몇 전략들만 일정한 기준 없이 제시되고 있다.

향후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단계에 맞는 전략 목록을 도출하고 이를

학습 내용과 전략을 함께 지도하는 통합 교수 혹은 전략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분리형 교수 형태로, 수업에 응용한다면 학습자의 소통 능력은 보다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습 단계에 맞는 검증된 전략 목록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자연 발화에 주목하고, 거기에 나타난 담화적 특질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 분석을 통해 다기능 논쟁 전략을 추출해 줌으로써, 전략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대립적 논쟁 전략 및 기타 논쟁 전략에 관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이어가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김수경(2007). 한국인과 일본인의 말 끼어들기 현상 연구 -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선·장경희(2004). 초등학생 대화에서 관찰되는 질문의 기능과 발달 양상, <국어교육> 115호, 한국어교육학회. 157쪽~184쪽.
- 노은희(1999). 대화 지도를 위한 반복 표현의 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경숙(2004). 『담화 분석-대화 및 토론 분석의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유동엽(2003). 일상 대화의 논쟁 원리와 전략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6호, 국어교육학회. 295쪽~321쪽.
- 이지현(2013). 몽골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토론 담화에 나타난 말 끼어들기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옥(1999). 한국어 담화에 나타난 반복 표현의 기능, <한국어 의미학> 4호, 한국어의미학회. 25쪽~63쪽.
- 정명숙(2013). 한국어 대화에서 말 끼어들기의 결정 요인, <우리말연구> 34호, 우리말학회. 163쪽~186쪽.
- 조완철(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격식적 논쟁 담화에 나타나는 말 끼어들기 양상,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위수(2011). 숙달도에 따른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 연구-반복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5호, 이중언어학회. 261쪽~284쪽.
- 조위수·윤남주(2013). 논쟁 담화에 나타난 질문 전략 비교 연구-한국어와 아랍

- 어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3차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1쪽~304쪽.
- 조위수·조완철(2013). 논쟁 담화에 나타난 질문의 기능 연구 -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교재의 논쟁 담화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8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27쪽~252쪽.
- 황은하(1999). 한국어 학습자의 반복 현상 연구-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담화에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ialystock, E.(1990). *Communication Strategies*, Oxford: Blackwell.
- Dörnyei, Z.(1995). On the Teachability of Communicative Strategies, *TESOL Quarterly* 29. pp. 55~85.
- Govier, T.(1992). *A Practical Study of Argument*. Belmont, CA: Wadsworth.
- Gumperz, J.(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ckson, S. & Jacobs, S.(1982). Conversational Argument: A Discourse Analytic Approach. In R. Cox & C. A. Willard, (Eds.), *Advances in Argumentation Theory and Research*,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pp. 205~237.
- Kellerman, E.(1991). Compensatory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Research: A Critique, a Revision, and Some (non-)implications for the Classroom, in R. Rhipplison, E. Kellerman, L. Selinker, M. Sharwood Smith, & M. Swain (Eds.) *Foreign/Second Language Pedagogy Research*,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pp. 142~161.
- O'Keefe, D. & Benoit, P.(1982). Children's Arguments, In R. Cox & C. A. Willard, (Eds.), *Advances in Argumentation Theory and Research*,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pp. 154~183.
- Ruth, B.(1946).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박규태 옮김, 「국화와 칼」, 서울: 문예출판사, 2008).
- Schiffrin, D.(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nen, D.(1984). *Conversational Style: Analyzing Talk among Friends*, Norwood, NJ: Ablex.
- Tarone, E.(1984). Teaching Strategic Competence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in S. Savignon & E. Berns, (Eds.), *Initiatives in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Reading*.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 Tarone, E. & Yule, G.(1989). *Focus on the Language Learn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교육부 2014년 통계 자료

270 이중언어학 제61호(2015)

조위수(Cho Wisu)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46234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전화번호: 051-509-5554

전자우편: [only0124@bufs.ac.kr](mailto:only0124@bufs.ac.kr)

접수일자: 2015년 10월 19일

심사(수정)일자: 2015년 12월 21일

게재확정: 2015년 12월 23일